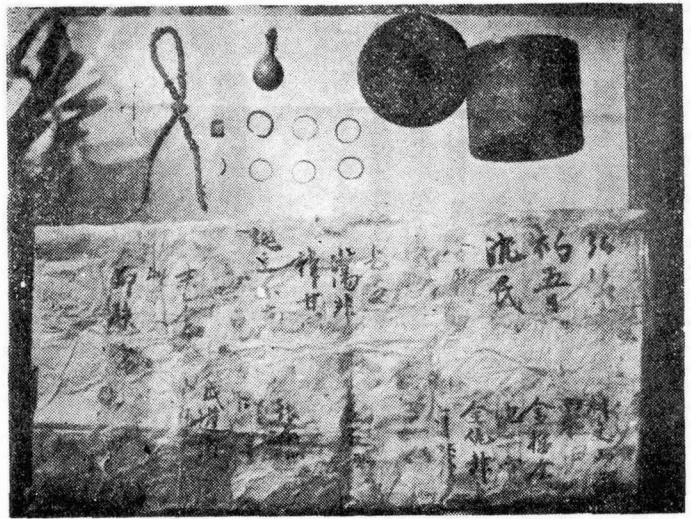


舍利瓶實測圖

단 弘治七은 明 孝宗 七年으로 李朝 成宗 二十五年(一四九四年)에 該當된  
다. 當時 石塔을 重修함에 信徒들이 上記 遺物들을 裝置한 것으로 思料  
된다. (6) 黃銅製蓋付盒은 形態가 蓋와 盒이 接하는 處를 蓋口緣에 도  
드라진 圓帶가 둘러 있으며 盒底邊에도 같은 圓帶가 二條 둘러 있다.

盒表에는 細線으로 上下 二段  
에 各一條의 平行된 陰刻이 있  
다.

註 이 글은 慶南道廳에서 現  
品送付에 添附한 目錄에 依  
據한 것이나 工事 擔當者의



6, 翡翠色 유리製  
小舍利瓶 一個(蓋付  
높이 四·七cm) 附  
舍利一粒(白色)  
7, 유리連珠 連  
透明色 綠色 黑갈색  
等의 連珠가 섞여져  
피여졌다. 8 形으로  
本是된 것임

8, 指環 七個 銀  
製(腐蝕灰色) 完一  
個 白銅製 六個(一個  
는 2/3 破失) 四  
個는 濃朱色으로 變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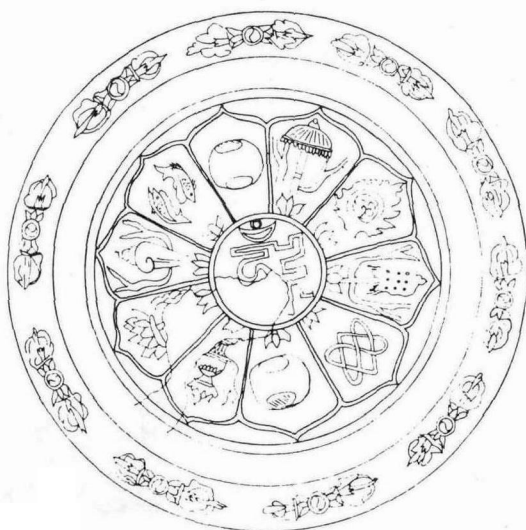
9, 銀片 一點(無  
變換)  
等이 었다. 遺物  
中 韓紙(4 에 나타

말에 의하면 舍利孔(徑 十二cm 길이 十六cm) 위에 綿絹布片이 있고 舍利筒  
은 石底面에 그대로 놓이였으며 그 옆에 열납이 있어 內部에 墨書紙가 들  
어 있었었다 한다. 發見日字 一九六二年 一月 二十五日

### 兩紐寶花鏡의 一例

李 蘭 暎

지난 三月下旬 어느분의 紹介로 兩紐寶花鏡 一點을 얻어 볼 수 있는  
機會가 있었다. 이 鏡은 위선 鏡에 兩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關  
心을 끌었는데 나는 여러 記錄을 찾아본즉 國立博物館所藏品으로서 이와  
거의 같은 크기의 것이 한點 疎開品 가운데 끼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不  
幸히도 現在는 直接 찾아 볼 수 있는 道理가 없으나 古蹟圖譜에 依하면  
여기서 紹介하려는 銅鏡과 비슷한 크기에 또 거의 비슷한 文樣으로 陰  
刻되어 있는 것이다. 圖譜에서 보이는 所謂 兩紐八花鏡은 周緣部의 陰  
刻文이 甚히 磨滅된 듯 그 뚜렷한 윤곽을 알아 볼 수 없었지만 內部는  
八葉의 蓮瓣을 마련하고 그 花瓣 하나하나에 文樣을 새기고 있는데 그  
역시 뚜렷한 모양을 알아 보기가 힘들다. 다만 맨 가운데 部分에는 梵  
字가 새겨져 있고 그 주변은 두줄로 된 선을 그리고 자기 그 줄에서 外緣  
部를 向하여 凸凹文을 새기고 있으며 蓮瓣과 蓮瓣은 두겹의 테두리 사  
이에 獨立된 하나씩의 선이 처지고 兩紐는 蓮瓣사이에 位置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筆者가 過眼했던 銅鏡은 위선 周緣部에는 三鉗杆 一〇  
個를 새겨서 이른바 我, 佛, 衆生의 教義를 表示하고 있으며 中心部에는  
博物館所藏品과 같이 梵字를 역시 陰刻으로 새기고 있으나 梵字의 周  
緣은 두줄을 두르고 外緣에만 각 蓮瓣속에 세개씩의 仰蓮을 새각기 새  
기고 있다. 바탕에는 一〇個의 花瓣으로 構成하고 각 蓮瓣속에는 연꽃  
봉오리 같은 角類, 蓮葉 등등의 무늬를 넣고 두개의 蓮瓣 각기 하나씩  
紐의 部分을 位置시키고 있다. 또한 蓮瓣의 테두리는 좀더 락게 두줄을



### 寧越發見 金銅如來立像

秦 弘 燮

一九六二年八月頃 江原道寧越郡 上東面 九來里에서 佛像 一軀가 發見된 것을 最近調査할 수 있었다. 이 佛像의 發見動機는 家屋을 新築하고 整地作業中 地下 三尺에서 出土되었다하며 他遺物의 伴出關係나 其他 遺蹟에 對한 것은 全然 알 수 없다. 다만 發見地點에서 二km 떨어진 洞窟(方向不明)에 法興寺라는 寺刹이 있었다고 傳하며 따라서 그 洞窟을 『법구』或은 『법호실』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佛像은 正面 直立한 像으로 아직 金色이 燦然히 남아있다. 머리는 螺髮이며 顔面은 正眼正視하고 兩頰이 매우 豐滿하다. 兩耳는 比較的 짧은 便이고 목에 三道가 없다. 法衣는 通肩하였고 通印한 두 팔목에 걸쳐 흘러내렸으며 特히 前面에서는 발목까지 내려와 衣端이 弧線을 그리고 있다.

새기고 있을뿐 博物館 所藏 同種의 鏡과 같이 蓮瓣사이에 선을 새긴 것은 보이지 않는다. 거울의 전체面은 銀이 곱게 먹여져 있어 比較的 保管狀態가 良好한 편이며 근데근데 녹은 자국이 남아있을 따름이다. 直徑二一·五cm

다. 그 兩側에는 袍衣褶이 보이지 않으나 前面에 만若干 보이고 있다. 두 발은 正面을 向하였고 足下에는 左足에만 突起가 남아 있으나 原來는 右足下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頭後에는 孔穴이 있으니 光背를 附着했던 자리도 보이며 背面에는 上下二個處에 구멍을 뚫은 데 腹背藏을 장치하고 막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全面에 金色이 남아 있으나 頭部와 衣文凹部는 色이 脫落되고 靑銅色이 露出되고 있다. 姿勢나 顔面이 整頓되었고 前面下部의 衣文은 慶州斗笠里 磨崖石佛 本尊像의 衣文과 恰似함을 느끼게 한다. 勿論 新羅統一時代에 屬하는 佛像이지만 比較的 堅實한 솜씨를 보이고 있으며 特히 良好한 保存狀態로 收拾되었음은 多幸한 일이다. 全高二一·五cm 頭高四·五cm



### 粉靑沙器繩簾文水滴

李 殷 昌

一九六二年五月에 論山郡 陽村面 新良里에서 同里居住 李廣洙氏가 發見한 粉靑沙器繩簾文水滴을 紹介해 두고자 한다.

水滴은 高九cm 最大直徑八·五cm 굽다리의 直徑四·五cm로 硯滴으로서는 比較的 큰 便이며 形態는 插圖에서 보는바와 같이 大略 圓錐形으로